

복을 누리는 궁극적인 결합에 다다른다. 사회가 강요하는 희생으로 무참히 스러져가는 삶을 피할 수 없어 다만 죽음 안에서 구원받는 연인, 살아서와 마찬가지로 죽어서도 늘 함께일 두 소년 소녀의 사랑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. 생피에르가 비르지니로 하여금 살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하게 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순결함을 봉인할 수 있는, 그럼으로써 만물에 깃든 섭리의 조화로운 손길을 논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른다. 이 가능성 안에서 폴과 비르지니의 고결함, 두 연인이 지켜낸 사랑의 순결함, 섭리가 이 지상에 구현해야할 정의, 그리고 덕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이 만난다. 우리가 낭만이라 부르는 거대 서사 역시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.

김현준